

종합

“평동 砲사격장, 개발 방안 검토”

강운태 시장 당선자 소유권 이전 등 국방부와 협의 달동네 126곳 소방도로 건설...8개 직제 개방형으로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가 국방부 소유인 광산구 평동 포 사격장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강 당선자는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평동 포 사격장은 196만평으로, 그 안에 지장물도 없는 정말 좋은 땅”이라며 “우선 국방부와 소유권 이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 사격장 부지의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실제 개발이 가능한 부지는 전체의 20~3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민선 4기에 추진된 ‘관광레저복합타운’ 부지인 서구 서창동 절골 주변 100만평이 개발 가능지로 남

아있는데다, 도시 외곽을 대규모로 개발할 경우 구도심 쇠락을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평동 포 사격장의 경우 서창동에 비해 땅값이 저렴하고, 접근성도 뛰어나지만 국방부 소유로 돼 있어 개발부지로 검토되지 못했다”며 “강 당선자의 취임 뒤 개발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당선자는 이와 함께 “올 하반기 광주시 예산 부족분이 2100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상태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언급, 민선 4기 추진된 사업 중 일부의 연기·감액·중단 등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는 당장 하반기 인건비도 확보하지 못한 자치구에 대한 광주시의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향후 자치구의 ‘재정 대란’도 우려된다.

또 강 당선자는 “도로개설은 지방비 부담이 없는 선에서 추진하고, 광주시역 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달동네 126곳에 소방도로를 우선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조직개편과 관련, 강 당선자는 정무부보를 신설하고 공보관·감사관·인권담당관·일자리창출지원관·기업유치지원관 등 5자리는 개방형 직위제로, 문화수도정책관·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계약심사과장 등 3자리는 개방형 또는 내부 공무원 발탁이 가능한 복수직으로 할 방침이다. 비서실장은 내부 4급 서기관을 기용하고, 비서실 직원 중 1명은 장애인 공무원으로 하는 등 인사 원칙도 일부 공개

했다.

강 당선자는 “게으르거나, 민원을 장기간 내버려두거나, 시민에게 지탄을 받거나, 부정·부패·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은 용납할 수 없다”며 “아무리 어렵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발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 당선자는 “공무원들은 민원을 소극적 또는 피동적, 부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민을 행복하게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강 당선자는 지난 7일부터 3주간 인수인계작업을 도운 민선 5기 인수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수정·보완하고, 여기서 제안된 100대 실천과제는 관련 공무원과 인수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거친 뒤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 일정에 공개할 예정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준영 도지사(왼쪽에서 두번째)와 미국 알버말사의 마크 로어 회장(왼쪽에서 세번째), 정인화 여수시 부시장이 29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6700만달러 규모의 투자협약(MOA)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에 따라 알버말사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인근 두암지구 4만㎡ 부지에 석유화학 촉매제품 생산공장과 R&D기능을 겸한 신제품 시험 생산시설을 건립한다. <전남도제공>

세계적 정밀화학기업 ‘전남에 등지’

알버말사, 여수산업 6700만달러 투자협약

미국의 세계적 정밀화학기업이 전남지역에 등지를 튼다.

전남도는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미국 알버말(Albermarle)사의 마크 로어(Mark Rohr) 회장 일행이 참석한 가운데 6700만달러 규모의 투자협약(MOA)을 체결했다.

알버말사는 이날 투자협약에 따라 여수국가산업단지 인근 두암지구 4만㎡ 부지에 석유화학 촉매제품 생산공장과 R&D기능을 겸한 신제품 시험생산시설을 건립하게 된다. 알버말

사는 오는 2011년까지 1단계 투자를 통해 시험생산에 마친 뒤 2013년까지 모든 시설을 완비하고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알버말사는 여수에서 폴리올레핀 조촉매(MAO)와 메탈로센 담지촉매를 생산하게 된다.

이 생산기술은 알버말이 보유한 핵심기술로 기획재정부가 이미 고도기술 수반사업으로 인정할 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전남도 관계자는 “알버말사의 전남 진출로 지역 석유화학기업에 고품

질 촉매제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종합병원 진찰료 환자 전액부담 추진

대학병원 환자 쓸림 막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대학병원뿐 아니라 종합병원에서의 진찰료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을 현

행 60%에서 70~80% 인상하는 것과 함께 일반 종합병원의 진찰료를 본인부담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국 317개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 시 받고 있는 초진비 1만4940원을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 동안엔 상급종합

병원의 초진비 1만6450원만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하고 의원급(1만2280원)과 병원급(1만3430원), 종합병원급은 진찰료의 30~50%만을 환자 본인이 부담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감기 등 가벼운 질환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50%에서 60%로 올렸던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다시 70~8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진찰료 전액에 처치료나 검사비 등 진료비의 70~8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런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게 될 상급종합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44곳이다. 이같은 방안은 하반기 중 확정돼 시행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전, 세종시 말곤 모릅니다’

1면 '민선 5기'서 계속

하지만, 집행부 거수기 역할에는 충실했다. 광주시의회가 지난 4년간 지자체 조례안의 원안을 가결해준 비율은 85.6%였으며, 전남도의회도 76.1%에 달했다. 전국 평균 7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는 특정 정당 이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독식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지방의회가 지자체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안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나주시의회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나주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1456건을 지적했지만, 시정 안 된 것이 518건(35.6%)에 달했다.

이를 개선하려면 지방의회의 독립

성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방의원이 자치단체장과 같은 당 소속인 경우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도입하고 현재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지방의회 공무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무엇보다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방의회 의원은 특정 정당을 떠나 주민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집행부의 예산 및 행정사무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주일보 사회부 김호·양수현 기자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

한국기자협회(회장 우장균)는 29일 제 237회 이달의 기자상에 본보 사회부 김호·양수현 기자의 ‘대학 유서 간강사 유서 남기고 자살’ 보도(지역취재부문) 등 5편을 선정했다.

김 기자 등은 지난 5월 26일 자살한 조선대 시간강사 서모(45)씨의 안타까운 죽음의 배경을 심층보도함으로써 대학 사회에 만연한 비리구조를 고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기자 등은 교수제음비리와 논문매달 등을 고발한 서씨의 유서 내용을 토대로 시간강사의 현실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본보 보도에 따라 정부는 ‘전일시간강사’ 법제화 추진 등 근본적인 처우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상식은 오는 6월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기·통신시설 한곳에 '지하공동구' 의무설치

지상에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땅에 제각각 묻혀 손을 볼 때마다 도로를 파헤치게 하는 전기·가스·통신시설들이 앞으로 개발되는 대형 택지에선 지하 공동구(共同溝)로 들어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00만㎡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 지역 등에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동구는 전기·가스·수도 및 통신시설 등을 하나의 지하 공간에 수용하는 시설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하며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연합뉴스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 직통:227-9600 · FAX:227-9500

이형만 장학회 장학생선발 공고문

재단법인 이형만 영광군향우장학 재단은 재광 영광군향우회가족 중에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 지원자격
 - 광주시 관내 거주 시민으로 고교생과 대학생
 - 단, 2009년 8월 1일 현재 주민등록본 자에 한함
 - 광주시민으로 무연고, 세대주, 가족주, 개인상환 등 고려
 - 선발예정인원: 6명
-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기타서류: 품장사본 (본인 명의)
- 선발일정
 - 서류접수: 2010년 7월 27일(목) ~ 31일(월)
 - 면접심사: 2010년 8월 1일부터
 - 최종선정: 2010년 8월 2일종 발표
 - 장학금 지급 및 증서 수여식: 2010년 9월초(토) (※ 최종 선정 장학생 개별통지)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접수(7월 31일까지)
 - 신청 및 문의처
 - 광주 북구 동림동 1254번지 7층, 사무처장 감 대 의 T. 062-673-0419
 - 신청양식: 신청서 별도 양식 참조(네이버에서 이형만 영광군향우장학회 http://cafe.naver.com/yeonggwanggun 카페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으세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맞춤 비료! 경성인회석 대리점모집

친환경 기업이자 무공해 신소재 전문개발업체인 (주)경성천연농업이 자체개발한 제품 경성인회석이 국내 농가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어 화제!

자연(국내광산)에서 추출한 광물질을 주원료로한 친환경비료 100%천연공법으로 적용한 제품이다. 대부분의 비료가 화학합성을 통해 생산되며 이 제품은 100%천연공법으로 적용한 제품이 없어 시장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구용성인 경성인회석의 장점은 시비된 비료가 빗물에 유실없이 토양에 오래 잔류하면서 작물생육에 가장 이상적인 공급방법이다. 현재까지 판매결과 식품의 성장축진은 물론 병충해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이고 있어 최근 수요가 높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안정맞춤의 비료로도 각광받고있다.

영업사원 : 00명모집

(주) 경성천연농업

대표 전화 ☎ 0701-4138-5779

문의전화 : 010-5574-6766

인생열쇠

☎ 062-383-8982

- 큰 꿈을 가지고 많은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도 원하는 바를 성취 못하고 알 수 없는 장애가 생기는 분
- 현실의 장애를 이겨내고 이루고자 하는 꿈을 실현하고 싶은 분

소원성취의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점술원, 역술원 아님. 상담료 없음)

부담없이 차 한잔 하시면서 삶의 지혜를 얻어 가세요

판결공시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9 고경 75 절도

피고인: 이승우

위 피고인은 절도 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0년 6월 30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박정제

판결공시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8 고단 195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 김병희

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과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0년 6월 30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박정제

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지방법원 가정지법 사건번호: 2010-단 871

사 말 자: 유재인 (1905.09-1149.11.6)

최후주소: 광주 동구 산수동 537-11

특기기준지: 인천 남구 도화동 산 80-10

위 망 유재인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28조(제외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간(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재권 또는 수증물 신고하지 아니하면 정산에서 제외함.

2010년 6월 30일

- 공고인: 유규연
- 한정승인수리일: 2010년 6월 23일
- 공고기간: 2010.06.30 ~ 2010.08.29
- 신고처: 광주 동구 산수동 537-11 윤규연 (010-8856-7465)

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지방법원 가정지법 사건번호: 2010-단 794

사 말 자: 박순자 (4207.08-2641.6.14)

최후주소: 광주 서구 광천동 59-11

특기기준지: 전남 화순군 남면 사평리 185

위 망 박순자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28조(제외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간(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재권 또는 수증물 신고하지 아니하면 정산에서 제외함.

2010년 6월 30일

- 공고인: 최성진
- 한정승인수리일: 2010년 6월 23일
- 공고기간: 2010.06.30 ~ 2010.08.29
- 신고처: 광주 북구 중흥동 373-42 최성진 (010-9182-9550)